

# 한국 현대 문학의 진단과 기독교 문학의 과제

## Diagnosis of Korean Contemporary Literature and the Task of Christian Literature

이승우

소설가

### 1. 1990년대 문학의 시대적 배경

#### 1-1

문학이 시대를 향해 발언하고 시대의 걸음을 끌고 가는 것이 사실인 것처럼, 시대가 문학의 토양이 되어 양분을 제공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모든 문학은 중력의 영향권 안에 있다. 더 정확하게는 중력이 있기 때문에 문학이 있다. 우리의 삶이 진공 상태의 삶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문학 또한 진공 상태의 문학이 아니다. 삶의 구체성을 떠난 문학은 존재하지 않는다.

#### 1-2

1990년을 전후해서 우리는 참으로 대단한 사회적 변화를 경험했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동구의 몰락, 사회주의의 철거가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고, 그 사건들은 냉전 이데올로기에 길들

여진 우리의 정신을 충격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대결이 사실상 끝났다는 선언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국내적으로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권위주의 정권으로부터 부분적으로나마 민주화를 이끌어낸 시기이기도 했다. 사람들은 흥분했고, 또 우왕좌왕했다. 변화된 시대가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의 태도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근본적으로 산업 사회와 함께 등장한 사회의 존재 틀이었다. 농경 사회를 지배한 이념이 봉건주의였다면 산업사회를 주도한 이념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였다. 끊임없는 진보와 무한한 역사의 발전에 대한 믿음이 이들 이념의 속얼굴이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은 지워졌다. 동구 사회주의의 몰락이 자본주의의 정당성을 입증한 것이라는 식의 흥분된 시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산업사회의 라이벌이었지만 짝패였고 파트너였다. 한 쪽의 몰락은 다른 쪽에도 치명적이다. 사회주의의 몰락과 함께 선언된 것은 사회주의의 종말이 아니라 이념의 종말이었다. 이 현상은 이념을 탄생시키고 키우고 열매 맺게 했던 산업사회가 종착지에 이르렀음을 증거한다. 탈이데올로기와 함께 탈산업사회, 혹은 후기 산업사회라는 개념이 우리의 정신 속으로 들어왔다.

### 1-3

20세기를 지배해온 거대한 틀이 철거된 마당에서 적절한 삶의 태도를 정하지 못한 채 당혹감을 느끼며 우왕좌왕하는 사람들 속으로 재빠르게 포스트모더니즘 이론이 들어왔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절대적 진리와 의미의 중심과 가치의 기준을 해체하고, 그런 것들 없이 사는 법에 대한 홍보전을 펴 나갔다. 이성에 대한 준엄한 질책, 해체와 다양성의 옹호, 그리고 욕망의 제한없는 분출이 새

로운 인간의 삶의 방식으로 선전되었다.

이 땅에 압구정동이라는 욕망의 해방구가 생겨난 것은 펍 시의적(時宜的)이다. 그곳의 시민은 오렌지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웠다. 생산 대신 소비, 공동체 대신 개인, 정신 대신 감각, 이념 대신 욕망으로 무장한 이 새로운 종의 인간이 오늘날의 주인공들이다. 아이엠에프 체제라는 돌발 사태를 건너 뛰는 동안 주춤하던 이 새로운 인간형의 보편화가 세기 말의 아노미적 분위기의 지원을 받아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 2. 90년대 문학의 초상 - 개인의 발견, 감각과 관능, 대중성, 그리고 인공적 상상력

### 2-1

현 단계의 한국 문학은 이와 같은 시대적 경험을 그 배경으로 거느리고 있다. 배경으로부터 인물이 걸어 나온다. 그 배경에서 걸어 나온 인물의 초상화를 그리는 것이 지금부터 할 일이다.

80년대는 거대 담론의 시대였다. 권력과 민주화, 분단과 통일 같은 주제들이 이념 사회를 사는 작가들을 강박했다. 사회의 산물일 뿐만 아니라 사회 변혁을 이끌 유용한 매개체 역할을 자임한 리얼리즘 문학의 기세는 모든 문학 작품의 가치를 사회학적 기준에 따라 평가하게 했다. 사회학은 인문학을 삼키고 예술을 소화했다. 작가들은 사회학으로 글을 썼다. 80년대 문학은 거대 담론의 문학이었다. 자연히 미학적 고려는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고 개인과 일상의 소외도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졌다.

90년대 문학이 개인에게 애정을 기울이고, 사소하고 자질구레한 일상에 카메라를 들이댄 것은 전 시대의 엄숙주의와 거대 담

론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집단과 이념의 부피에 가려 보이지 않던 개인과, 추구하고 지향해야 할 이상적 사회의 모델에 대한 강변에 놀려 들리지 않던 일상의 목소리들이 때를 만난 듯 튀어나왔다. 작가들은 웅변 대신 속삭이는 듯한 고백체의 소설을 다투어 내놓았다. 특히 여성성의 발견과 여성 작가들의 활발한 활동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우리 문학의 90년대적 경향을 주도한 출판사는 문학동네이고, 90년대적 경향을 가장 잘 드러낸 대표적 작가는 윤대녕과 신경숙을 비롯한 몇몇 여성 작가들이다. 그들이 개인의 내면에서 캐낸 광석들의 빛으로 90년대 우리 소설판은 눈이 부실 지경이다.

## 2-2

감각과 관능은 이 시대 젊은 작가들의 가장 강력한, 어쩌면 유일한 무기이다. 우리 문학, 특히 소설은 주제를 잃었다. 아니, 버렸다. 주제는 소설의 신인데, 세상이 신을 잃고, 혹은 버리고, 신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소설도 주제를 잃고, 혹은 버리고, 주제 없이 쓰이고 있다. 신 없는 세상의 살림살이가 정신의 아나키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처럼, 주제없는 우리의 소설도 그러하다.

감각이 그 빈 자리를 채웠다. 시대의 별판을 횡단하는 영상 매체들의 감각적 이미지들이 소설 속으로 들어왔다. 작가들은 정신과 이성에 호소하지 않고 감각에 달라붙는 글을 쓰려고 한다. 빠르고 감각적인 문장들로 스치듯 그려 간다. 텍스트의 의미를 묻는 일은 구닥다리라고 시대착오라고 선언된다. 중요한 것은 느낌이다.

지금, 여기 말고 숙고해야 할 다른 시간, 다른 공간은 없다. 왜? 존재는 참을 수 없이 가벼우니까. 삶은 우연과 충동의 연쇄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니까. 감각이 포착하는 것이 무가치하다거나 허위라고 말할 수는 없다. 특히 문학의 자리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감각이 포착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얇은 층의 진실이라는 사실은 부정되지 않는다. 존재는 여러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칸트는 감각에 의존한 실존을 가장 저열한 것으로 간주했다. 오늘날의 문학이 하나같이 관능의 포즈를 취하고 있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주제가 없는 시대에 어쩌면 유일한 주제가 성(性)이다. 성적 담론과 성적 이미지들이 홍수처럼 넘쳐 난다. 성을 매개로 하지 않은 광고가 거의 없다. 그리고 우리의 문학은 대체로 광고를 닮아 가는 도중에 있다.

존재는 여러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다. 더 깊은 층에는 더 깊은 진실이 있다. 180미터 암반수에서 뿜어져 나온 지하수의 물은 지표면을 적시는 물과 그 맛이 같을 수 없다. 몇 년 전에 맥주 회사의 매출 순위를 현저하게 바꿔 놓은 것이 바로 이 물, 더 정확하게는 물이 나오는 깊이에 대한 논쟁이었다. 문학은 어떤 의미로든 진실에 대한 탐구인데, 대개의 진실은 깊은 곳에 숨어 있다고 말할 한다. 혹은 더 깊은 곳에는 더 깊은 진실이 있다.

### 2-3

대중 문학과 순수 문학의 경계가 사라졌다. 우리 나라가 산업사회로 진입해 가던 1970년대 중반, 최인호가 『별들의 고향』을 통해 호스티스를 주인공으로 내세움으로써 문학의 시장성을 확인한 대중 소설은 출판 규모의 확대와 함께 급속히 성장해 왔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대중 소설을 쓰기 시작한 최인호, 한수산 등 70년대 작가들에게는 순수문학과 대중문학의 변별성에 대한 의식이 매우 선명하였다. 예컨대 그들은 신문 지면을 통해 대중소설을 본격적으로 썼는데, 문예지에 작품을 쓸 때와는 전혀 다른 의식과 자세로 신문 연재 소설에 임했다. 그들은 작품을 창작하는 자이면서 어느 순간에는 상품을 생산하는 자라는 또 하나의 신분을 가졌다. 그

두 개의 상이하고 배반적인 신분 사이에서 갈등하고 긴장한 흔적을 우리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문학에 대한 그들의 자세가 진지했기 때문이다. 그 세대의 작가들에게 문학은 아직 좀더 고상한 것이었고 순수한 것이었다.

그러나 90년대의 세대적 감수성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은희경이나 윤대녕, 혹은 김영하 같은 작가들에게 순수문학과 대중문학에 대한 구별된 의식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들이 문예지에 쓰는 글과 신문에 연재하는 글 사이의 질적인 차이를 전혀 발견할 수 없다. 이들이 두 개의 신분을 의식하는지, 그 두 개의 신분 사이에서 갈등과 긴장을 느끼는지 알 수 없다. 그들은 단지 소설을 쓸 뿐, 순수소설을 쓴다는 생각도, 대중소설을 쓴다는 생각도 따로 하지 않는다. 이들은 시대와 함께 진보한 작가들이다. 이들의 당당함은 개인의 체질이 아니라 세대적 특성인 것으로 이해된다.

이제 더 이상 문학을 고상하고 순수한 것으로 생각하는 작가도 많지 않고 그렇게 기대하는 독자도 거의 찾아 보기 힘들다. 우리 시대는 이미 대중문화 시대 속에 진입한 지 오래되었다. 라디오에서 흘러 나오는 유행가, 시청률에 웃고 우는 TV 드라마, 스포츠 신문의 만화, 도심의 빌딩 위에서 도시인들을 내려다보는 전광판의 광고, 골목마다 한 개씩 들어선 비디오 대여점, 그리고 서점의 베스트셀러 순위를 장악한 소녀 취향의 시집들- 우리는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들 때까지 대중문화 속에 포위되어 지낸다. 대중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자연이 아니라 문화이고, 특별히 대중문화이다.

대중문화는 전달의 단순성과 직접성에 의해 규정된다. 말을 바꾸면, 고급문화, 혹은 귀족 문화를 받아들이고 즐기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훈련과 준비 과정을 필요로 하지만(예컨대 클래식 음악의 경우를 생각해 보라!) 대중문화를 받아들이고 즐기는 데는 특별한 훈련이나 숙달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 이런 시대에 문

학만 고상하고 순수하리라고 기대할 수 없고, 또 요구할 수도 없다. 우리의 문학도 대중이 특별한 준비와 훈련 과정을 거치지 않고 쉽게 받아들이고 즐길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컴퓨터의 대량 보급이 만인 작가론을 만들어낸 영향도 있다. 누구나 작가다. 그러니 아무도 작가가 아니다. 어떤 평론가는 문화의 민주화라는 말을 써서 이 현상을 해석한다.

#### 2-4

소설들 속에 자연이 등장하지 않는 것도 이 시대 문학이 가진 한 현상으로 거론 할만하다. 대부분의 소설들은 도시를 배경으로 하고, 첨단 문명의 소도구들을 과도하게 이용한다. 자연은 강가에 세워진 카페의 넓은 통유리창을 통해 내려다보이는 풍경으로나 등장한다. 서정은 없고 감각만 넘친다. 서정주 시인을 키운 것은 8할이 바람이었지만, 오늘날의 세대를 키우는 것은 9할이 기계이다. 무엇보다도 컴퓨터를 통한 통신 체험과 가상의 현실에 대한 친숙함이 젊은 세대의 문학에 결정적인 양분을 제공한다. 인공지능 상상력은 새로운 문학적 경향성이다.

자유로운 삶과 상상력을 억압해 온 사회적 금기들의 해제가 이 현상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의 오래된 금기는 권력과 성이었다. 문학은 금기가 있을 때 그것에 도전하려고 한다. 금기의 존재는 문학에게 소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시대적 역할에 민감해지게 한다. 현실이 만족스럽거나 적합하지 않을 때 문학의 현실 대응력은 역설적으로 빛을 발한다. 사회적 금기는 문학으로 하여금 그 현실을 떠나지 못하게 한다. 상상력의 날개를 묶고 현실 위에 머물게 한다. 80년대 문학의 강한 현장성을 생각해 보라.

그러나 사회가 금기로부터 풀려날 때 문학은 반대로 그 현실을 떠나려고 한다. 우리는 지금 금기가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다.

권력에 대해서도 그렇고 성에 대해서도 그렇다. 강철수나 고우영이 그린 성인만화를 돌려보며 은밀하게 성에 대한 호기심을 키워 온 세대에게 인터넷에만 접속하면 언제든지 자기 방에서 세계 각국의 동화상 포르노를 감상할 수 있는 요즘 세대의 개방 풍토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이다. 감춰진 것이 없고, 그러므로 감춰진 것을 찾으려는 의욕도 생겨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시대의 문학은 환상과 상상력을 청한다. 기발한 것과 도발적인 것을 향해 치달는다. 유희적 동기가 강한 철저한 인공의 문학이 바야흐로 꽃피려 하고 있다. 컴퓨터 통신을 통해 그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는 판타지 문학은 전형적인 한 징후이다.

## 2-5

오늘날의 우리 문학은 내면화되어 있고 감각화되어 있고, 대중화되어 있고 인공적 상상력에 의존하고 있다. 그것들을 아우르는 하나의 성격은 철저한 세속성이다. 그러나 인간이 육체만의 존재가 아닌 것처럼 문학 또한 세속적 차원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초월을 이야기하는 작품을 만나기가 어렵다. 우리 문학은 왜소해지고 얽아졌다. 우리 문학은 비가 내리는 하늘을 가려 놓고 땅만 판다. 땅에서 솟아나오는 물이 하늘에서 내린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형국이다.

## 3. 기독교 문학의 요청

### 3-1

태초에 하나님의 신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리고 거기에다 대고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대고, 그로부터 창조가 시작되었다.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날까?

혼돈과 공허 속으로 들어가 창조의 질서를 만들어냈던 태초의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한다. 빛이 있으라. 감각과 관능과 혼돈의 진흙탕 속에 우리 문학이 있다. 이런 시점에 기독교 문학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기독교 문학에게 어떤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까? 시대와 문학의 수렁 속으로 들어갈 힘과 의지를 기독교와 기독교 문학 속에서 찾을 수 있을까?

### 3-2

그러면 무엇이 기독교 문학인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기독교 문학은 기독교 문학이다. 기독교와 문학은 기독교 문학의 정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이다. 기독교 문학이라는 집을 세우고 있는 두 개의 기둥이 기독교와 문학이다. 둘 중 어느 하나가 기울거나 쓰러지면 이 집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만다.

잘 쓴 소설과 시들이 물론 있다. 그러나 기독교적 요소를 그 안에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작품을 기독교 문학의 범주 안에서 다루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기독교의 진리가 충만하다고 해도 그 작품이 문학을 만족시키지 못할 때는 기독교 문학이라고 부르는 것을 미뤄야 한다. 기독교 문학은 우선 문학이어야 한다. 이 명제는 타협할 수 없고 양보될 수도 없다. 설교나 간증문 같은 것이 문학의 이름을 얻기 힘든 이유는 그것의 내적 동기와 역할에 있다. 설교나 간증은 수신자들의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반응만을 목표로 한다. 감동을 유도하는 것이 그 역할이고 내적 동기다. 문학 역시 감동을 지향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즉각적인 날것의 감동을 겨냥하는 것은 아니다. 문학은 좀 더 꾸불꾸불하고 멀고 은유에 싸인 길을 통해 간다. 문학이 호교 문서나 전도지와 같을 수

없다. 문학의 존재 이유는 문학 안에 있다. 기독교 문학의 존재 이유도 문학 안에서 찾는 것이 마땅하다.

### 3-3

기독교로부터 소재를 가져왔다는 것은 기독교 문학으로서 지닌 가능성을 담보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으로 곧 기독교 문학이 되는 것은 아니다. 기독교적 배경은 더욱 문제삼을 일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세계관이다. 기독교는 창조자인 유일신을 말하고, 인간의한계(죄와 죽음)를 말하고, 역사의 시작과 끝을 말하고, 구원자인 그리스도를 말하고, 성령의 지배를 말한다. 또한 자유와 정의와 사랑과 평화의 윤리를 살도록 권면한다. 물론 이것만으로 기독교가 다 설명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기독교가 그렇게 간단히 설명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기독교 문학이 확보해야 할, 양보할 수 없는 기독교적 토대는 신의 존재에 대한 인식과 인간의 구원에 대한 진지하고 치열한 추구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것이 초월적 영역이다. 땅만 파고 있는 우리 문학의 세속성에 뿌려 줄 단비와 같은 것이다.

그렇지만 초월을 이야기할 때 낭만주의적 상상력이나 환상의 세계와 뒤섞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세계 너머를 이야기하는 방식에는 신비주의와 정신주의가 있다. 신비주의는 에로스 모티프에 근거한다. 에로스 모티프의 핵심은 세계 부정이고, 황홀경이고, 범신론이다. 그것들은 다분히 인간의 감각과 심리에 밀착해 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들, 감각이나 심리를 정신이 아니라 육체에 속하는 것으로 분석한다. 정신주의는 아가페 모티프에 근거하는 것으로, 그것의 핵심은 세계 구원이고, 추구하고, 유일신이다. 기독교 문학 속에 답아야 할 초월이란 이런 것을 이른다.

## 3-4

기독교 문학을 결정짓는 것은 세계관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 세계관이 반영된 작품이 기독교 문학이다. 사실은 기독교 문학을 하겠다는 특별한 다짐 같은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기독교 문학의 작가는 기독교인이다. 문학은 작가의 삶과 세계관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보면(세속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세속적인 작품을 쓴다. 초월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초월적인 작품을 쓴다).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기독교적 삶을 살아 가는 사람(기독교인)이 좋은 작품을 쓰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런 사람의 문학에 기독교의 진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수 없다. 믿음은 포즈가 아니고, 감정도 아닌 까닭이다. 문학은 세상과 삶을 읽는 일이고, 세상과 삶에 대해 주석하는 일이다. 문학이 일종의 주석이라면, 어쩔 수 없이 누구의 주석인지를 묻게 된다. 작가의 문제다. 세계관을 가지지 않은 작가는 없다.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일 뿐이다.

그렇다면 굳이 기독교 문학이란 것을 내세울 필요가 있는가라고 물을 수 있다. 타당성이 있는 지적이다. 기독교 문학이라는 걸 유별나게 구별해서 이야기함으로써 문학의 한복판에서 정당하게 논의되지 못하고 열외되어 버리는 불이익을 자초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없는 것이 아니다. 이런 염려는 지금까지의 기독교 문학의 수준과 한계를 단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기독교 문학이 우리 문학의 시야를 확대한 것으로 이해되지 않고 편협한 세계에 갇힌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현실은 반성을 요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문학을 강조해서 말하는 까닭은 주로 문학 내부의 요청에 의한 것이다. 기독교 문학이 기독교의 진리를 주장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문학 역시 형식의 미학을 얻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문학은 예술적 차원과

함께 사상의 깊이와 높이를 갖춰야 한다. 특정한 이데올로기나 가치 있는 내용이 좋은 문학의 유일한 잣대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작품 속에 담긴 생각의 깊이와 넓이를 배제한 채 단순한 형식 미학만으로 문학 작품을 평가할 수도 없는 것이다. 엘리어트에 의하면, 문학의 위대함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사상이다. 체질적으로 사유에 대한 결핍증이 심한 우리 문학에 기독교는 튼튼한 세계관과 삶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제공하는 것으로 큰 몫을 담당해 왔고, 또 할 수 있다.

교회들이 기독교적 세계관과 기독교적 삶에 충실한 작가를 배출하고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걱정되는 것은 새로운 작가들의 작품에 '기독교'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것은 기독교, 또는 기독교가 제시하는 세계관이나 삶의 방식이 젊은 문학도들을 끌어들이지 못한다는 증거다.

오늘날 왜 좋은 기독교 문학이 나오지 않는가라는 의문은 불가피하게 오늘날 기독교인 작가가 왜 없는가의 의문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아마도 이 문제는 우리 교회의 행동 유형과 스타일에 대한 반성을 유도하는 문제로 연결될 것이다.

#### 4. 교회를 향한 제언

##### 4-1

들판에 흩어진 철학과 신학의 뼈들을 주워 모아 거기에 '말'을 붙여 넣음으로써 산 몸으로 되살리는 예언자와 같은 존재가 작가라고 말한 사람은 신학자 칼 라너(Karl Rahner)이다. 사상의 뼈들에 언어를 붙여 넣음으로써 문학의 몸을 만든다.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 문학을 강조해서 말해야 하는 까닭이기도 하다. 기독교는

문학으로부터 요청을 꾸준히 받아 왔고, 또 받고 있다.

특히 생기를 잃고 흐물거리는 오늘의 우리 문학에 기독교는 잃어 버린 주제를 제공함으로써 문학을 구해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 기독교적 세계관에 기초해서 작품 활동을 하는 작가의 수는 현저히 줄어 들었고, 기독교가 가진 진리를 문학의 화두로 삼은 작품의 생산은 더욱 귀해졌다. 간혹 기독교가 작품 속에 등장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소재 제공에 그치는(그나마도 기독교 본질에 대해서가 아니라, 기독교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둘러싼 부정적인 세태에 대한 야유로서) 형편이다.

우리가 진지하다면 문화에 대한 기독교 전반의 관심을 질문해 보아야 한다. 선교를 양적 성장에 국한해서 생각하는 것은 낡은 틀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문화에 대한 세례이다. 문화는 먹고 입는 것이며 생활이고 일상이다. 생각이고 행동이며 언어이다. 우리는 자연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문화 속에서 산다. 문화에 대한 세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천만이 넘는 기독교 신자를 가진 한국 사회를 주술과 감각이 지배하고 있다.

한 보고서에 의하면 한 해 우리 나라 중요한 신문의 무속 관련 광고가 월 평균 24일 이상이라고 한다. 매일 게재하는 신문도 있다는 보고다. 현실적으로 기독교 신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역술인들의 고객이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 교회 안의 주술적 행태들이 이런 현상의 주범이다. 신비한 일이나 카리스마적 능력에 환호하고 기대는 주술적 신앙에 의해 우리의 고유한 믿음은 많이 훼손되어 있다. 성직자는 주술사가 아니고, 주술사여서도 안되는데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주술사를 찾는 이상한 종교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다. 샤머니즘의 영향이다. 우리의 종교 지도자들은 성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이나 인격을 함양하려고 하는 대신, 사람들을 홀릴 신비스런 은사나 주술적인 능력만을 추구하려

는 경향을 보인다. 그런 종교 현장에는 삶이 없고 문화도 없다. 오직 노이로제가 있을 뿐이다.

#### 4-2

이제는 성장이 아니라 성숙을 말할 때가 되었다. 성숙이란 내용과 질의 향상을 이른다. 문화에 대한 감각이 그 바탕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한 기독교 월간지가 지난 해 9월 특집 제목을 '교회성장주의가 멈춰야 교회가 산다' 고 잡았다. 동감이다. 성장주의는 출세주의의 다른 표현이다. 교회를 키우고 신자를 늘리려는 교회 지도자들의 의중 속에 순수한 전도열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성심만 자리잡고 있는지 약간의 의혹을 가지고 있다. 출세주의가 악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통속적인 열망인 것만은 확실하다. 가장 성스러워야 할 교회의 지독한(때때로 세속인들의 경멸의 대상이 될 정도로) 통속성은 다른 맥락에서 심각한 문제다. 우리의 교회는 맹목적인 믿음의 주입과 양적 팽창에 대한 노이로제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문화에 대한 열림, 문화 속으로 기독교를 밀고 들어가기, 그것이 선교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 4-3

종교를 문화로 떨어뜨리자는 것은 내 주장의 핵심이 아니다. 폴 틸리히는 종교가 문화의 내용이고 문화가 종교의 형식이라고 말했다. 문화로 하여금 참된 종교의 형식이게 하자는 것이다. 우리 문화 속에 참된 기독교의 외피를 입히자는 것이다. 문화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한 의도적인 무시와 배타적인 경멸이 가장 나쁘다. 대중문화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자리매김의 작업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일방적인 부정이나 매도여서는 곤란하다. 문자가 생긴 이후로 우리는 문자와 함께 산다. TV가 생긴 이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TV의 영향권 안에서 산다. 컴퓨터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다. 그것들은 이미 강과 산과 구름과 언덕 같은 것들이 되어 있다. 사람이 그것들 속에서 산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것들 없이 어떻게 살겠는가?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산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우리는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아직 천사가 아니다. 우리는 아직 몸을 가지고 있고, TV를 보고 신문을 읽고 영화를 보고 컴퓨터를 만진다. 우리는 기독교인이지만 동시에 한국인이고, 남자거나 여자고 대중이다. 우리는 세상을 벗어나라고 부름 받은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도록 부름 받은 자들이다.

문화, 특히 대중문화에 대한 극단적인 부정의 목소리들이 우리 교회 안에 주류를 이루고 있는 점을 우려한다. 문화, 특히 대중문화에 대한 노골적인 거부감이 좋은 믿음의 표현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분위기는 위험하다. 극단에 있는 것은 대체로 악이다. 나는 극단주의, 혹은 근본주의를 신뢰하지 않는다. 극단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자기들이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겸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 대해 배타적이고, 그래서 월드컵사건 같은 야만적인 사건을 끊임없이 일으키고, 대중문화에 대해 마음을 열지 않는다. 대중문화를 매일 먹고 마시는 요즘의 젊은이들에게 교회가 현실적 대응력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우리 교회 안의 대중성은 또 다른 차원에서 문젯거리다. 세상의 대중문화를 닮았고 나무라지만, 그러나 교회 안의 대중문화 역시 심각하기는 마찬가지다. 대중문화는 그 직접성과 즉각성, 그리고 선정주의를 특성으로 한다. 기독교 출판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책들을 살펴 보면 내용과 질의 수준은 둘째로 치고, 그 직접성과 즉각성, 그리고 선정주의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대중문화의 해악을 지적하는 논조도 공박의 대상이 된 대중문화 못지 않게 대중

적이고 얇고 경박하다.

#### 44

한때 교회는 문학적, 예술적 감각과 재능을 가진 사람이 모여 드는 곳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예술적 감각과 재능을 가진 사람들에게 세상과 분리된 맹목적이고 극단적인 믿음만을 강요함으로써 불필요한 죄책감을 심어 주고 밖으로 밀어내는 분위기마저 느껴진다. 좋은 기독교 문학 작가가 태어나기 어려운 사정이다.

우선 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 기독교가 제대로 된 문학 잡지 한 권 정도는 만들어 내고 꾸준히 지원할 수 있는 힘을 가지지 않았는가?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우리 나라 기독교의 출판 시장은 양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이 사실이다. 출판사의 숫자도 늘어났고 출판되는 책도 적지 않다. 잡지의 종류도 다양하다. 정기 구독자를 꽤 많이 확보한 잡지도 있다고 한다. 그런데도 문학을 비롯한 예술 세계를 다루는 잡지가 거의 없다는 사실은 우리 교회 내부의 문학과 예술에 대한 이해의 수준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할 것이다. 마땅한 작가가 없다고 투덜거리는 것이야말로 게으르고 무책임한 태도이다. 정직하게 말하면 작가가 활동할 무대가 없는 것이다.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작품 활동을 하려는 사람들을 꾸준히 발굴하고 발표 지면을 마련해 준다면 기독교 문학의 영토는 한층 넓어질 것이다. 그리고 감각과 관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문학 현실에서도 튼튼하고 견고한 기둥으로 설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져 본다.